

민주당 도종환 비대위 체제... 다음달 2일 전당대회

지도부 구성 8개월만에 퇴진... 당 대표, 송영길·우원식·홍영표 경합 원내대표 경선 한달 앞당겨 16일 개최... 윤호중·안규백 등 4명 출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일 총사퇴했다. 당 지도부 구성 8개월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차기 원내대표 경선 등의 일정을 앞당겼다. 전당대회는 애초 이달 9일에서 2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다.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달 중순에 열기로 했지만, 한 달을 앞당겨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이는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여 하루 빨리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구성해 민심에 부합하는 당 쇄신과 혁신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당장 오는 9월부터 차기 대선을 위한 후보 경선 일정을 시작해야 함에 따라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 아래에 최대한 빠르게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까지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맡는다.

당대표 대행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부 사퇴 이후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할 것"이라며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민주당 혁신에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다. 철저히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회견에는 김종민·노웅래·양향자·박성민·염태영·신동근·박홍배 등 최고위원 전원이 함께했다. 최고위원의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였지만, 이번 사퇴 결정으로 임기 1년4개월을 남기고 전원 퇴진하게 됐다.

회견 후 민주당은 최고위를 열어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민홍철·이학영·김영진·신현영·오영환 의원,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까지 총 7인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변재일, 부위원장은 전혜숙·박완주 의원이 맡았다. 중앙당 선관위원회에는 이상민 의원이 임명됐다.

내주 원내대표 경선에는 윤호중·안규백·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4·7 재보선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며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완주 의원이, 내달 2일 당대표 경선에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들의 선출 문제는 비대

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칙적 대응 내용을 비대위에서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향후 내로남불 사례에 대한 원칙적 대응 내용을 비대위에서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대권레이스 시동... 여야 모두 '안갯속'

민심 예측불허... 민주 9월·국민의힘 11월까지 후보 결정해야

4·7 재·보궐선거 종료와 동시에 차기 대권 레이스에도 본격 시동이 걸렸다.

차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도로 접어들 것인 전망 속에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재보선 결과가 '정권심판'의 여파였던 만큼 향후 여야의 대권구도 변동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자별 희비와 입지, 세력별 지형 재편도 재보선 결과에 따라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실정' 등으로 인해 여론에 매서운 회초리를 든 이번 재보선의 민심이 남은 11개월간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또 한 번 변화를 겪을지 선불리 예단할 수 없다.

당장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부터 재보선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당헌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180일 전인 오는 9월까지, 국민의힘은 120일 전

인 11월까지 대선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2016년 총선부터 전국단위 선거 4연승을 달리던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 패배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무엇보다 청년·중도층의 분노한 민심이 확인되면서 책임론과 쇄신론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권 전반의 내부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다.

당내 대권주자 중에서는 이낙연 전 상임선대위원장 장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등판을 준비하는 제3후보들도 탄력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 체제가 견고해질 수 있지만, 당내 친문(친문재인) 지지층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느냐가 과제로 거론된다.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한때 거론된 '경선 연기론'이 당내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탄핵 수렁에서 벗어나 야권 재편의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앞으로 중도 실용 노선으로의 외연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당내 혁신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 밖 인물들과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에서는 직접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 플랫폼을 자처하며 '원샷 경선'을 추진하겠지만, 안 대표나 윤 전 총장이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모처럼 찾아온 야권 우위 구도 속에서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당 안팎의 잠룡들이 어느 정도 잠재력을 발휘할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재보선 직후 퇴임하는 김종민 비대위원장이 장외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윤영덕 "지방대 위기 극복 광주대학발전협력단 출범 환영"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8일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시와 교육청, 지역 17개 대학이 참여하는 '광주대학발전협력단' 출범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방대 위기는 대학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 및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며 "10여 년 전부터 지방대 몰락 위기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뒷받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대 위기와 고등교육 문제가 중앙정부 및 교육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광주시가 지방대학 운영에 있어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지방정부가 지방대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우수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 산업과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부족해 지역 우수 인재가 다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5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를 등을 감안하여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7년부터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를 7-8년 정도 둔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에는 수도권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의 공공기관 총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을 각 지역별로 균등 배분한 결과, 지역 격차는 여전히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362개 중 254개(수도권 157개, 충청권 84개, 강원권 13개)가 중부권에 쏠려있고, 영남에도 74개 기관이 있는 반면, 호남에는 고작 29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김종인 "국민의힘,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 말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재보궐선거 압승과 동시에 당을 떠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 투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이라며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봤듯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고 지적했다. 몇몇 중앙급 인사들이 외부 세력(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과 손잡고 당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런 갈등과 욕심은 그동안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언제든 재현될 조짐을 보인



다"면서 "국민의 현명하고 강인한 힘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대인동 싼 빵

- ▶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 가능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

수기동 제일OP

- ▶ 20층 중 8층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매매 - 1억1000만원
- ▶ 20층 중 20층
- 계약 252㎡, 전용면적 142㎡
- 매매 - 3억3천만원

※ 사무실 전용, 코너, 주차 편리
문의. 010-3605-5000